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13)(1/5/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4 장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함, 2-4 절

마 8:25 -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전 1:19 -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 45:9 -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롬 9:20 -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 29:16 -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빛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시 117:2 -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

2. 주님, 주의 손길을 거두시면, 거기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주의 인도하심을 멈추시면, 그 어떤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주의 보호하심을 그치시면, 그 어떤 힘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순결함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순결함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주의 눈동자가 지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도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면, 우리는 깊이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반면에(마 8:25), 주께서 우리를 찾아 주시면,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지극히 불안정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존재이지만, 오직 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미지근하고 냉랭한 존재이지만, 오직 주로 말미암아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3. 주님, 나는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오직 주의 측량할 수 없으신 판단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의 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겁고,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아서, 거기에서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판단 앞에서는 그 어떤 자랑도 숨을 곳이 없고, 그러한 자랑으로부터 생겨나는 자만심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온갖 헛된 자랑은 나에 대한 주의 저 측량할 길 없이 깊은 판단 속에 삼켜지고 맙니다.

4. 주님 앞에서 모든 육체는 무엇입니까?(고전 1:19). 진흙 그릇이 자기를 만든 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사 45:9; 롬 9:20).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헛된 말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사 29:16). 자기 자신을 진리에 복종시킨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나서도 우쭐대게 만들 수 없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까닭에, 얼마 후에는 그들이 한 말들과 더불어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진리는 영원합니다(시 117:2).

**말씀과 해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와 삶 자체가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한 것이며, 주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고 말씀하며 시작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존재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그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 .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고 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섭리 가운데 극진한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은 창조주이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며,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힘을 가지고 일어나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생산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고 유익을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시는데, “너희일까보냐”라고 하셨다. 마 6:26, 28, 30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무나 주옥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염려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담겨 있다. 그것은 주님의 다정하시며 세심한 사랑의 돌보심이다. 아울러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 가운데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롬 3:24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오늘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깨달음과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감사와 성숙된 겸손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하고 내어 놓을 것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고전 15:10)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순전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며, 더욱 은혜를 사모한다. 다윗은 시 27 편에서 환난 중에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했다. 시 27:3-4 -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이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 시 57:1 -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척박한 삶 속에서 때때로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질 때, 섬김과 봉사의 의욕이 감퇴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사랑 실천이 잘 되지 않을 때,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마음이 커져갈 때, 그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 현재 당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난을 견디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다. 요 17:1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은혜를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 부흥과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3.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 핍박, 재정적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와 해결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